

원숭이 해 운세, 원숭이에게 물어봐

광주 백화점갤러리 신년기획전

신세계, 내달 15일까지 ‘헬로우 Mr. 몽키’전
각양각색 원숭이 만나...판화 작품도 나눠줘

롯데, 6일~내달 2일 ‘생활 예찬’전
현웃·넴비...생활용품 활용한 작품 선보



윤남웅 작 ‘猿’



손봉채 작 ‘무제’

수백마리의 원숭이들이 몰려온다. 다행히 영화 ‘혹성탈출’에 나오는 것 같은 성난 원숭이들은 아니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띤 원숭이들이 친근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에게 다가온다.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해 2월15일까지 ‘헬로우 Mr. 몽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상연, 김지영, 손봉채, 송영학, 신호운, 안진성, 엄기준, 윤남웅, 이이남, 장수아, 정운학, 정현성, 조대원, 황중환 등 1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회화, 조각, 설치, 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밝고 활기찬 각양각색 원숭이를 만날 수 있다.

갤러리 전면 유리벽 안에 설치된 김상연 작가의 작품은 수백마리의 원숭이들이 벽에서 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길게 늘어뜨린 빨랫줄처럼 원숭이들은 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윤남웅 작가의 도자기 작품 ‘猿(원)’은 각기 다른 표정, 다른 자세를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눈을 감고 사색하는 모습,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모습, 사과를 받아 들고 좋아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표정과 다르지 않다.

손봉채 작가의 인형 원숭이들은 새해 운세를 보고 있다. ‘재미로 보는 운세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배제 메시지와는 다르게 사뭇 진지한 원숭이들의 모습에서 웃음기가 느껴진다.

이이남 작가는 5분45초 분량의 미디어아트 ‘2016 문명전투도’를 선보이고 황중환 작가는 다정하게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원숭이 가족이 등장하는 만화 ‘386C 가족’을 출품했다.

한편, 9~10일 ‘새해 맞이 원숭이 판화 이벤트’가 진행된다. 새해 메시지가 담긴 안진성 작가의 실크스크린 판화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해 나눠줄 예정이다.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 한해서 일일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또 전시를 감상 후 느낀 점을 50자평 종이에 써내면 아트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1271.

롯데갤러리는 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년기획 ‘생활 예찬’전을 준비했다. 김동아, 김세진, 마C, 박수만, 백상옥, 윤남웅, 이재문, 채경남, 채지은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작가들은 현웃, 도마, 넴비, 고무신, 포장천 등 생활 속 소재를 활용한 평면, 입체, 설치 등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동심의 판타지부터 일상 풍경, 삶의 욕망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담아냈다.

김동아 작가의 ‘소소한 풍경’은 폭포수 아래 한가로이 수영을 즐기는 어린이들이 나온다. 담목과 목탄을 이용한 작품은 마치 정선의 박연폭포와 유사한 느낌이다.

현웃으로 만들어진 이재문 작가의 작품은 오래된 옷이 주는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정서가 특징이다. 작가는 자연이 깃든 옷을 기증 받아 그들의 이야기를 형상화했다. ‘행복한 줄음’은 엮여져 자고 있는 여자아이가 등장한다. 한창 놀다가 지쳐 잠든 듯 한 모습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외에도 박수만 작가는 나무 도마, 넴비 등에 회화화한 인간상을 표현했고 백상옥 작가는 고무신으로 묘사한 다양한 얼굴 표정으로 삶의 애환을 녹여냈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마르지 않는 창작의 샘 ‘산해경’ 다시보기

표문화전당 내일 아시아 신화 컨퍼런스

‘산해경’(山海經)은 중국 각지 산과 바다의 풍물을 수록한 책으로, 중국 최고(最古)의 신화집이자 지리서로 통한다. 이 책은 현대에도 문학과 예술 창작자들에게 상상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돼 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이 ‘산해경과 놀기, 그리고 신화의 귀환’을 주제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전당 대강의실(문화정보원 지하 1층)에서 아시아 신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해경’이 현대 문학, 예술, 문화산업 각 부문에서 어떻게 해석됐고 창작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행사의 기획을 맡은 정재서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교수는 “다시 산해경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마르지 않는 창작의 샘인 산해경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조현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웹툰



정재서 교수

‘신과 함께’에 반영된 한국 무속의 신화적 상상력을, 최진아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는 ‘산해경’에 등장하는 기괴한 사물들을 부르는 이름의 주술적 의미를

분석한다.

최원오 광주교대 교수는 한국 무속 신화에 등장하는 서천꽃발이 문화산업에서 어떻게 변용됐는지, 김윤아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포켓몬을 비롯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 활용된 ‘산해경’ 몬스터 이미지의 특성과 기능을 살핀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희망자는 온라인 사전 신청(goo.gl/forms/TmmUw0kG5n)하거나, 현장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01-402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신년 기획전 참여 작가 모집

4~14일 선착순 접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신년 기획전 ‘기쁨+사랑+행복+’에 참여할 지역작가를 4~14일 선착순 모집한다.

출품작품은 53×45cm 이내로 작품 주제는 새해를 맞이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작품, 혹은 원숭이를 미술작품을 통해 재해석한 작품(글)이어야 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21일까지 본관 로비 아트라운지에서 개최된

다. 지역작가들을 비롯해 지역사회 리더 10여명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회화, 사진, 서예 등 약 50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사회 리더는 미술관 측에서 선정해 작품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시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미술관 학예연구 1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40여명.

전시 개막행사는 19일 오후 3시 아트라운지에서 참여 작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천년의 하루’ 발간

한승원·김다경·김용매·박성천 등 10명 작품 실려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작품집 ‘천년의 하루’(심미안)가 발간됐다.

이번 작품집은 지난 1970년 ‘소설문학’ 창간 이후 열 번째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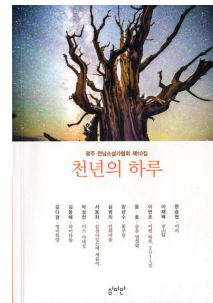
271쪽으로 발간된 작품집에는 ‘영어학당’(김다경), ‘라이타돌’(김용매), ‘미스 마네킹’(박성천), ‘삼천리강산에 새봄이’(서용좌), ‘만해마을’(심영의), ‘꽃무덤’(양관수), ‘숨을 멈춰봐’(윤호), ‘어떤 하루, 2014년’(이연초), ‘堊山寮’(이재백), ‘미끼’(한승원)가 수록됐다.

또한 ‘지역문학’의 관점에서 광주·전남과 대구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한 ‘영·호남 지역문학에서의’(심영의)가 실렸다.

전용호 전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은 “소설가는 이야기를 창작하기 위해 고심하는 하나의 작은 우주”라면서 “소설 나라이에서 꿈을 먹고 사는 작가들이 내년에는 더 나은 작품을 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귀엽고 똑똑한 원숭이의 해, 丙申年

신년기획1
원년의 해 아시아문화전당에 희망을 묻는다

문화창조원 광주문화산업 불 밝힐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랑받는 어린이문화원

신년기획2
전문가가 본 2016 10대 키워드

“MONKEY BARS”

기획1

피규어, 예술영화, 낚시, 게임
각양각색 덕후들의 세상을 엿보다

행복한 덕질에 빠진 3인의 마니아
캐릭터 사랑 각별한 연예인 덕후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①
신들의 나라 그리스
화려한 산토리니와
소박한 낙소스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③
비취색 골목마다 문화의 별이
뜨는 동네, 발산마을

리빙 앤 스타일
넵킨아트 전문가 오은서씨의
넵킨활용 공예

남도 美味樂
점점이 가고 싶은 섬들

사람이 브랜딩다③
전통과 현대 가로질러
‘공간’ 창조한 예술가
서울 종로구 &
건축가 김수근

예향이 만난 이사람
삶의 연극 꿈꾸는 귀농 연극배우 이상직
혁신도시 소통 캠페인 ‘배꽃대방’ 최철호·조용보

지역 문화
개원 100주년 국립소록도병원
이름의 역사, 희망의 내일 담아 기념행사

컬처 앤 피플
종피두센터 현대미술관
카트린 다비드 부관장이 말하는
문화전당 경쟁력

앵글 속 아시아③
화려한 관광의 나라
순박한 속살, 태국

스타 데이트
“최진언은 불륜남 아닌 순정남”
‘애인 있어요’서 여심 흔드는 배우 지진희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귀엽고 똑똑한 원숭이의 해, 丙申年

신년기획1
원년의 해 아시아문화전당에 희망을 묻는다

문화창조원 광주문화산업 불 밝힐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랑받는 어린이문화원

신년기획2
전문가가 본 2016 10대 키워드

“MONKEY BARS”

기획1

피규어, 예술영화, 낚시, 게임
각양각색 덕후들의 세상을 엿보다

행복한 덕질에 빠진 3인의 마니아
캐릭터 사랑 각별한 연예인 덕후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①
신들의 나라 그리스
화려한 산토리니와
소박한 낙소스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③
비취색 골목마다 문화의 별이
뜨는 동네, 발산마을

리빙 앤 스타일
넵킨아트 전문가 오은서씨의
넵킨활용 공예

남도 美味樂
점점이 가고 싶은 섬들

사람이 브랜딩다③
전통과 현대 가로질러
‘공간’ 창조한 예술가
서울 종로구 &
건축가 김수근

예향이 만난 이사람
삶의 연극 꿈꾸는 귀농 연극배우 이상직
혁신도시 소통 캠페인 ‘배꽃대방’ 최철호·조용보

지역 문화
개원 100주년 국립소록도병원
이름의 역사, 희망의 내일 담아 기념행사

컬처 앤 피플
종피두센터 현대미술관
카트린 다비드 부관장이 말하는
문화전당 경쟁력

앵글 속 아시아③
화려한 관광의 나라
순박한 속살, 태국

스타 데이트
“최진언은 불륜남 아닌 순정남”
‘애인 있어요’서 여심 흔드는 배우 지진희